

# 로동신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59호 [루게 제24472호] 주체103(2014)년 2월 28일 (금요일)

평양

##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2월 14일과  
15일에 진행된 세계적평화위원회창립사  
회 회의에 참가한 저희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탄핵하신 뜻깊은 2월 16  
일을 맞으며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당신께 이 편지를 드리게 된것을 영광으  
로 간주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근로인민대  
중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셨으며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선군조선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어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위협과  
공갈, 제재속에서도 사회주의를 믿음직하  
게 수호하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의 현명하고 영도함에 조선인  
민이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수  
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둔 놀라운 성과  
들은 세계 진보적인인민들과 근로자들에  
게 커다란 신심과 고무를 안겨주고있습니다.  
오늘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위업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드  
림없이 계승발전되고있습니다.  
당신의 현명하고 정력적인 영도함에  
최고인민조선인민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자랑스런 성  
과들은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와 제재속에서도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살림집과 문화휴식  
터들, 의료봉사기지를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시고계시는  
당신의 모습은 우리모두를 감동시키고있  
습니다.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  
어야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켜 인민의 리상을 현실로 꽃피울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선반도에는 적대세력들  
의 핵전쟁책동으로 일촉즉발의 전쟁위협  
이 조성되어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과 세  
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야합하여 내외의  
한결같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2월  
말부터 수개월간에 걸쳐 대규모의 <리  
틀>,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다  
는것을 공공연히 선포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반  
도정세와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위  
협천만만 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며 북남  
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갈때 대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력회 중대제  
안과 공개서한을 무조건 접수할것을 강력  
히 요구합니다.  
저희들은 조선의 통일이 이룩되자면 외  
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힘을  
확고히 견지하며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뿐 아니라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  
련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전적인 공감과  
지지를 표시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  
대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근로  
자들과의 권리와 리익, 복리증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는  
세계적연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  
으로도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  
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적업총동맹과  
전체 조선로동계급에게 변함없는 연대성  
을 보낼것이라는것을 당신께 확인하는바  
입니다.  
저희들은 조선에서의 사회주의강성  
국가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조선의  
통일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부디 안녕하시  
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세계적업총동맹위원장리사회 회의 참가자일동  
2014년 2월 15일 로 마

##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연합회 결성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연합회가 결성되었다.  
결성집회가 15일 도쿄에서  
진행되었다.  
집회에는 일본의 주체사상  
연구조직 인사들과 국제, 출판  
중앙상임위원회 일군이 참가  
하였다.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  
었다.  
연설자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연합회 결성집회가 가

지는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깊이  
연구보급하여 21세기를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세기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일본에서  
주체사상을 확립하는것과 함께  
주체사상선봉자대렬을 더욱 늘  
여나갈때 대하여 언급하였다.  
결성집회에서는 주체사상국  
제연구소 리사 가마쿠라 다카

오, 김정일저작연구회 전국연  
합회 대표상당역 이에 마사  
지,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후쿠시마연합회 회장 스미야  
게이조 등 여러 인사들이 전국  
연합회 대표상당역으로 선출  
되었다.  
이러한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연합회 결성선언이 채  
택되었다.  
선언은 김정은제1비서이사  
말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

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  
완성해나갈수있을것을  
그의 정력적인 혁명활동을 통  
하여 잘 알 수 있었다고 지적  
하였다.  
선언은 결성집회가 일본과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하  
여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연구 보급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  
려나갈 결의를 다지는 계기로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주체의 사상론을 더 높이 추켜들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에 접한 각계의 반향

### 사상으로 지켜가는 조선혁명의 명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고전적로작 <혁명적인 사상공  
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자>  
(이하 <사상론>로 약칭)을  
읽고 나서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사상의  
위력을 높이 떨쳐갈 새로운 열  
의에 충만되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으로 의하여 혁명의 명  
맥이 지켜지고 사상의 힘으로  
혁명이 전진합니다.>  
철세의 위인, 백두산장군들의  
슬개에서 개척되고 백승을 떨쳐  
온 조선혁명은 사상으로 개척되  
고 그 위업으로 승리를 떨쳐온 사  
상중주의 혁명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  
인연에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적수공원으로 시작한 조선혁명

에서 유일무이한 무기는 위대한  
혁명사상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함에 포  
악한 제국주의강적 인제에게 항  
전의 로프를 열 때 우리의 기세  
는 하늘을 찌를듯 높았고 기상은  
백두의 에메랄드야당 도도하였  
다. 그 무손 큰 무기가 있어서도  
아니었다. 그 누구의 도움을 받  
을데도 없었다.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  
세시고 그이께서 안겨주신 사  
상, 우리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할때 대한 주체적인 혁명  
사상이 있었기때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전  
의 나날 우리모두의 가슴마다에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  
며 오직 자재의 힘과 노력, 결사  
의 투쟁으로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을 해방하여야 한다는 사상  
을 깊이 심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심장에 새긴 항일의 투사들은  
사상의 힘으로 대오를 계속하였

고 무기도 해결하였다.  
모든것이 없거나 부족한 속  
에서도 백두밀밭에서 창조되어 나  
래친 연 고향탄정신, 소양창과  
처창조의 결사항전의 정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어주신  
혁명사상의 뚜렷한 발원지로서  
오늘도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따라 우  
리는 사상의 힘으로 력사에 류  
폐없는 간고한 항일의 조국해방  
의 혁명적위업을 실현하였다.  
피어난 항일의 나날 사상의  
위력으로 막강한 군사력과 최정  
예를 자랑하던 일제를 쳐부시고  
영웅적인 항쟁사를 창조한것은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대원수님들  
높이 모시고 우리 인민이 이룩  
한 력사적공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함에 우  
리의 반도와 인민은 준엄한 3년  
간의 반미대전에서 조국의 위  
력으로 침략자 미제를 쳐부시고

##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빛내여가는 청년전위들 지난 2년간 수많은 청년동맹조직들과 일군들, 청년들에게 김정일청년영예상 수여

오늘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  
에 살며 투쟁하고있는 우리의  
미더운 청년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함에 선군혁명의 최후대  
로의 영예로운 사명과 일무를  
홀홀히 수행해나가고있다.  
주체 101(2012)년 1월  
김정일청년영예상 수여  
원칙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울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청년들의 힘  
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때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라는 사랑  
의 친필서한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혼 관철에 한사람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전위대로서  
력을 더욱 폭발시켜주었다.  
조선혁명의 력명기의  
한발용위투사처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그이의 크나큰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해나갈 숭고한 사  
상감정으로 실재를 불태우고있  
는 우리 청년들은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빛나는 영웅적위  
훈을 세우고있다.  
<청년들을 사랑하라!>라는  
뜻깊은 구호를 제시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당의 정치적후배대,  
혁명의 계승자,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장군  
님의 숭고한 청년중시사상과 불멸  
의 업적을 빛내여가고있는 모범적  
인 청년들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서는 시대와 인민앞에 적극 내세  
워주시였다.  
김정일청년영예상이 제정된 때  
로부터 올해 뜻깊은 2월까지 지  
난 2년간 수백은 모범적인 청년  
동맹조직들과 청년동맹일군들,  
청년동맹원들에게 김정일청년  
영예상이 수여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의 명맥은 새 세대들  
에 의하여 이어지다 조국의  
앞날은 그들에 의하여 결정  
됩니다.>  
주체적청년운동의 강화발전  
에 모든것을 다 바치오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청년  
문제를 혁명고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라고 보시고  
한 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준 신  
군 인종중학교(당시) 4학년 한  
현정학생에게, 지난해 11월에  
는 전투입무행중 장렬하게 희  
생된 해군용사들에게 김정일청  
년영예상이 수여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  
이런 한현정학생의 최후를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그애  
가 보여주고 간 깨끗한 정신은  
영원히 남아 앞으로 이 나라의  
더 훌륭한 젊은이들을 키워내  
줄것이라는 뜻깊은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였다.  
희생된 용사들의 묘를 찾으  
시려는 비통함을 금치 못하시  
여서는 포부도 크고 위훈을 세우  
려는 꿈과 희망으로 가슴 불태  
우며 복부의 나이를 보낸 용사  
들과 영웅이 되어 고향으로 돌  
아오겠다고 신념을 굳혀오며  
나날의 희망을 두고 눈물을  
흘린 부모들,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들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억장이 무너지는것만  
같다고 하시며 그들이 영생의  
모습으로 더욱 빛나도록 사랑의  
희곡을 펼치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훌륭히

김정일청년영예상을 수여받았다.  
그들속에는 당과 수령에 대  
한 백옥같은 충성을 간직하고  
영웅적희생정신을 발휘한 우리  
시대의 참된 선군청년전위들도  
있다.  
2012년 6월에는 무더기  
에 의한 사재로 집이 무너질 위  
협한 순간에 백두산3대장군의  
초상화를 목숨바쳐 보위함으로써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선군시대  
청년동맹원의 빛나는 삶과 깨끗  
한 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준 신  
군 인종중학교(당시) 4학년 한  
현정학생에게, 지난해 11월에  
는 전투입무행중 장렬하게 희  
생된 해군용사들에게 김정일청  
년영예상이 수여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  
이런 한현정학생의 최후를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그애  
가 보여주고 간 깨끗한 정신은  
영원히 남아 앞으로 이 나라의  
더 훌륭한 젊은이들을 키워내  
줄것이라는 뜻깊은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였다.  
희생된 용사들의 묘를 찾으  
시려는 비통함을 금치 못하시  
여서는 포부도 크고 위훈을 세우  
려는 꿈과 희망으로 가슴 불태  
우며 복부의 나이를 보낸 용사  
들과 영웅이 되어 고향으로 돌  
아오겠다고 신념을 굳혀오며  
나날의 희망을 두고 눈물을  
흘린 부모들,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들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억장이 무너지는것만  
같다고 하시며 그들이 영생의  
모습으로 더욱 빛나도록 사랑의  
희곡을 펼치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훌륭히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  
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  
의 력사적인 연설을 받아안고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휩싸여  
있었다. 하나의 혁명대화를 마  
치겠다는 느낌과 온 우주를 받아  
안은듯 한 영광에 진정할수 없  
었다.  
혁명의 군복을 입고 사상일군  
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2월의 선언을 받아안고 감격에  
무미하던 40년전의 그날이 떠  
올라 격정은 더욱 뜨거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전 로정은 사  
실상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이 안고있  
는 진리의 힘을 남김없이 발  
양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력사  
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을 자자구구 새겨들고  
사상의 힘으로 혁명의 전환적  
면을 열어온 우리 당혁사의 잊  
지 못할 나날이 뜨겁게 돌이켜  
진다.  
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명맥이  
지켜지고 사상의 힘으로 혁명이  
전진한다는 고전적정식화를  
내리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일정하고 예지에 넘치신 모습은  
지금으로부터 40년전 사상일  
군대회를 틀스 조직하고 전국  
의 장군전일군들이 모인 자리  
에 위대한 선언을 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모습과도 같았다.  
감격도 새로운 주체 63  
(1974)년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제3  
차 사상일군대회에서 우리 당의  
지도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

회와 김일성-김정일주의의위업  
수행의 사상적기초로서의 영  
예와 책임의식을 안고 우리 당의  
혁명사상의 힘, 천만군민의 무궁  
찬 정신의 힘을 배배천배로 분  
출시킬때 대한 경애하는 원수  
님의 숭고한 뜻이 담긴 력사적인  
연설은 나의 심장을 세차게 울  
려준다.  
나는 우리 당혁사의 기록자,  
철세위인들의 위대한 혁명실  
적의 체화자의 한사람으로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에서  
빛받치는 그이의 높은 뜻을 심  
장에 새기고 혁명적인 사상공  
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  
한 오늘 투쟁에서 자신이  
맡은 숭고한 사명을 다해나  
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부소장 림영권

## 공세의 돌파구를 학습열풍으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 참가하였던  
나의 가슴은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사상의  
위력을 높이 떨쳐갈 새로운 열  
의에 충만되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  
공세의 목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그 구  
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인  
민대중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드는것입니다.>  
이런 대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당적으로 다시  
한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총서인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문헌들을 철저히 깨달도록 하  
기 위한 학습열풍을 일으키는것으  
로부터 사상공세의 돌파구를 열  
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사상공세의 돌파구를 학습열  
풍으로!  
바로 여기에는 천만군민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대중의 양양된 불굴의  
정신력으로 최후승리를 떨치  
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력력히 비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력  
사적인 연설에서 모든 당원들  
과 근로자들, 인민군인들이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문  
헌들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  
로 학습하면 주체사상, 선군사  
상과 김정일애국주의, 우리 당  
의 혁명전통과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으며 새로  
게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도  
깊이 파악할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을 강령적인 지침  
으로,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  
고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에  
들어 원수님의 의도를 알려주  
며 학습열풍을 일으키는것으로  
부터 사상공세를 시작하였다.  
우선 자신을 비롯한 일군들  
부터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런

고전적로작과 철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당문헌  
들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한다는 데 앞장서며 항일유  
격대식학습방법을 널리 받아  
들여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농업분부와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혼과  
당정책에 정통하고 그것을 사  
업과 생활의 신조로 삼도록 하  
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  
려나가고있다.  
그리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데로 군안에 로동  
의 붉은 사상이 깎 들어차게 하  
는 사상교양사업도 진공적으로  
벌리고 대중의 정신력을 불려  
올리는 정치사업도 확신으로  
도 벌려 사상공세의 집중화,  
연속화, 명중화를 들이대  
겠다.  
우리는 사상전선의 일군된 영  
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선군조선의 일대 변혁기를 열어  
나가는 력사적전선에서 혁명  
적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능

##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해불, 우렁찬 나팔이 되겠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  
군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을 직접 받아안으며  
나의 가슴은 새한 흥분으로 하여  
높아졌다.  
우현군당위원회 비서 박영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에 와서 사회주의의  
진로와 그 승리의 필연성은  
조선혁명가들의 투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지니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력사적  
사명을 수행하는데서 당의  
붉은 정수분자들은 사상일군  
들은 꺼지지 않는 해불이 되  
고 우렁찬 나팔이 되어야 합  
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우리 군대와 인  
민이 자주적인들의 존엄과 사회  
주의의 운명을 걸고 제국주의자  
들의 발악적공세를 물리치기 위  
한 혁명적위업을 완수하기 위  
하여는 당의 력사적인 전통을  
계승하고 인민은 력사에 류폐  
없는 단란시련을 과감히 이겨내  
고 혁명의 단결을 꽃피어 줄수  
있다고 그러도 뜨겁게 말씀하  
셨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심장  
이 새겨안을수 있다.  
특히 우리 혁명적분부의 일  
군들앞에 나서는 임무는 더욱  
중요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설  
에서 강조하신 강성국가건설의  
진로인 자력갱생은 항일의 혁  
명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있다.  
백두의 실현풍속에서도 굴할  
줄 모르고 단두대에서도 절개를  
굽히지 않은 투사들의 혁명정  
신, 맨주먹으로 해불, 우렁찬  
나팔이 되어 강도 일제를 쳐부  
시고 자력갱생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한 혁명선열들의 투쟁기  
풍을 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을 무한한 적정속에 받아  
안은 평양철도국 정치부 일군들이  
우리의 사상전지를 억적으로  
다져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림 학 락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을 무한한 적정속에 받아안은 평양철도국 정치부 일군들이 우리의 사상전지를 억적으로 다져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림 학 락

# 정론 사상전의 포성으로 강산을 뒤흔들자

역사적인 시기이다. 우리 당사상일군들에게는 참으로 불같은 시간이 흐르고있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제시하여 주신 역사적인 구호를 받아안은 혁명의 나팔수들의 가슴가슴은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맹세가지금처럼 뜨겁게 불탄적 없었고 각오가 오늘처럼 역세여진적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문을 가슴에 안고 자기의 사상전지를 차지한 시대의 선도자들이 그 하늘같은 믿음에 어떻게 화답해나서고있는가를 역사는 지켜보고있다.

조선혁명의 정치사상전지는 천만배로 더 굳건히 다져지고 위대한 사상의 힘은 강산을 뒤흔들고있다. 당사상전선이 뜨겁게 포문을 열었다.

새로운 출발지점을 차지한 우리 당 사상일군들의 힘찬 발걸음, 기백에 넘친 모습, 전례없는 열정과 함께 시대가 끓고있으며 조국이 더욱더 약물을 내뿜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여야 하겠습니다. 사상사업에서 우리 당의 전략전술은 맞바늘이기는 공격정신으로 사상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온 나라가 혁명적대고조의 불도기리로 부글부글 끓게 하는 것입니다.》

당사상일군대회를 앞둔 그 시각에도 우리 원수님께서 예비약의 불길을 앞장서서 지피시며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었다.

과도가 기세를 치는 수산사업조건 설정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간곡하게 하신 말씀은 얼마나 뜻깊었던가.

건설에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군인건설자들이 시대를 주름잡는 통마의 기술담당계 혁명의 편지를 남기는 보람처럼 영예로운 임무를 다할수 있도록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힘있게 벌려 건설장이 들썩이게, 부글부글 끓게 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

멀리 현지에서 돌아오신 우리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은 또 얼마나 천만의 가슴을 세차게 울리었던가.

주체의 사상론, 이 위대한 무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자는 것이 이번 대회의 기본정신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심장으로 깨닫고 있다.

모든 승리와 기적의 첫자리에 바로 사상중시, 사상선행의 원칙이 있다.

사상의 힘, 이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매일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끝없는 번영과 승리의 한길로 떠나는 힘있는 원동력이다.

나라와 민족마다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고 전진시켜나가는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다. 풍부한 자연부원을 미천으로 살아가는 나라들도 있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강국건설의 전략으로 틀어쥔 나라들도 있다.

조선혁명은 위대한 사상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고 사상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혁명이다.

사상의 힘!

무성한 거목 밑에 뿌리가 있듯, 굽이치는 대하에 마를 줄 모르는 시원이 있듯 우리 혁명이 새겨온 모든 승리와 영광의 자욱마다에 이 부름

이 뜨겁게 빛날지되고있다.

물어보자 력사여, 모든것을 령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면 안되었던 해방후의 빈터우에 우리 당이 제일 먼저 지핀 것은 무엇이었으며 재가루만 날리던 전후의 폐허우에 기적의 조성을 일떠세운 힘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해방의 첫 기슭에 타올랐던 건국 사상충동원운동의 불길을 잊을수 없다. 전후의 재더미우에 나뒀었던 천리마의 정신, 천리마의 기상을 우리는 긍지높이 자랑하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강산을 진감하던 대고조의 북소리와 속도전의 우렁찬 진풍나팔소리를 가슴에 새겨 추억한다.

사상의 위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 우리 조국의 제일국력이다.

온 세상이 부러워할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라는 바로 이 위대한 사상의 힘을 주주로 하여 일떠신다.

승마바람, 스키바람, 로라스케트바람...

온 나라를 호호하게 하여주는 이 류다른 바람이 우리 가슴에 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스키야영이라는 새 말을 우리 마시령스키장으로 향하는 행복한 새세대들을 바라볼 때면 가슴이 후두위된다. 행복의 물보라 끝없이 솟구치는 문수물놀이장의 전경을 바라볼 때에도, 기쁨의 말발굽소리 정답게 울리는 미령승마구락부의 정취를 한껏 호흡할 때에도 우리의 가슴은 벽차오른다.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 화하자!》, 이것이 오르면 18글자이다.

바로 그것을 지켜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서슴없이 바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기적의 낡은 것이 아니라 대중의 정신력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정령 피눈물의 12월을 넘어 오 늘에도 이어진 수백일의 날과 달들이 력사를 전진시킨 이 위대한 힘-천만군민의 정신력이 다시 한번 활활살같이 폭발할 때 우리 조국땅에는 얼마나 많은 마시령스키장이 창조될지이며 또 얼마나 많은 행복의 선경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게 될 것인가.

천만군민의 사상정신력의 폭발, 여기에 농업전선의 승리와 있고 대건설의 불바람도 있으며 과학전선의 힘찬 보폭도 있다.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는 바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력의 빛나는 승리인 것이다.

바로 그래서 원수님들은 우리의 힘이고 최강의 무기인 천만군민의 사상정신력을 허물어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린다.

보라, 어제는 《기다리는 전략》이니, 《경화적이행》이니 하면서 우리의 사상과 신념에 금이 가기를 기다리던 원수들이 오늘은 《변화를 기다리지만 말고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벌리며 비렬한 심리모략전에 광분하고있다. 엄청난 자금과 수단들이 포성없는 이 전쟁에 동원되고 현대과학의 최첨단성공품들이 도입되어 매일, 매 시각 보이지 않는 《심리폭탄》이 우리의 사상과 신념의 상체에 투하된다.

사회주의수호전선이 어찌 천리방선 전호기에서만 벌어진다고 하라.

불타는 거리와 마을은 보이지 않고 폭을 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위업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치열하고 준엄한 사상과 신념의 대결전이 바로 우리 생활의 한복판에서 벌어지고있다.

대포나 탱크가 파괴한 물질적재부는 복구할수 있어도 사상정신적재화는 만회할수도 복구할수도 없다. 그래서 군사적대결전에서는 일일일피

가 있고 방아와 공격이라는 술어가 있어도 사상정신적대결에서는 한치의 양보나 후퇴도 있어서는 안되며 단 한순간의 해이나 무방비상태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사상의 포성은 언제나 열려있어야 한다.

사상의 포문에 녹이 쏘면 사회주의를 지킬수 없다.

이것이 20세기가 남긴 비극이고 교훈이며 오늘도 우리를 끝없이 각성시키는 력사의 진리이다.

사상의 힘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사상의 힘을 말할수 있는 고귀한 진리가 있으며 력사적인 체험이 있다.

위대한 사상이란 무엇이며 위대한 사상의 힘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타 레지치는 불길 속 에 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와 우리 당의 기부호들을 안전하게 보위한 식주당의 새 세대 결사옹위투사들에 대한 이야기.

화염에 휩싸인 건물안에는 밖으로 안전하게 빠져나갈수 있는 통로들이 여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왜 그 길을 택하지 않았는가.

온몸을 뜨겁게 달구는 불속에서 그들이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품에 안고있는 글바람이 그것을 말하러 온다.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 화하자!》, 이것이 오르면 18글자이다.

바로 그것을 지켜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서슴없이 바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기적의 낡은 것이 아니라 대중의 정신력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정령 피눈물의 12월을 넘어 오 늘에도 이어진 수백일의 날과 달들이 력사를 전진시킨 이 위대한 힘-천만군민의 정신력이 다시 한번 활활살같이 폭발할 때 우리 조국땅에는 얼마나 많은 마시령스키장이 창조될지이며 또 얼마나 많은 행복의 선경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게 될 것인가.

천만군민의 사상정신력의 폭발, 여기에 농업전선의 승리와 있고 대건설의 불바람도 있으며 과학전선의 힘찬 보폭도 있다.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는 바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력의 빛나는 승리인 것이다.

바로 그래서 원수님들은 우리의 힘이고 최강의 무기인 천만군민의 사상정신력을 허물어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린다.

보라, 어제는 《기다리는 전략》이니, 《경화적이행》이니 하면서 우리의 사상과 신념에 금이 가기를 기다리던 원수들이 오늘은 《변화를 기다리지만 말고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벌리며 비렬한 심리모략전에 광분하고있다. 엄청난 자금과 수단들이 포성없는 이 전쟁에 동원되고 현대과학의 최첨단성공품들이 도입되어 매일, 매 시각 보이지 않는 《심리폭탄》이 우리의 사상과 신념의 상체에 투하된다.

사회주의수호전선이 어찌 천리방선 전호기에서만 벌어진다고 하라.

불타는 거리와 마을은 보이지 않고 폭을 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위업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치열하고 준엄한 사상과 신념의 대결전이 바로 우리 생활의 한복판에서 벌어지고있다.

대포나 탱크가 파괴한 물질적재부는 복구할수 있어도 사상정신적재화는 만회할수도 복구할수도 없다. 그래서 군사적대결전에서는 일일일피

가 있고 방아와 공격이라는 술어가 있어도 사상정신적대결에서는 한치의 양보나 후퇴도 있어서는 안되며 단 한순간의 해이나 무방비상태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사상의 포성은 언제나 열려있어야 한다.

사상의 포문에 녹이 쏘면 사회주의를 지킬수 없다.

이것이 20세기가 남긴 비극이고 교훈이며 오늘도 우리를 끝없이 각성시키는 력사의 진리이다.

사상의 힘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사상의 힘을 말할수 있는 고귀한 진리가 있으며 력사적인 체험이 있다.

위대한 사상이란 무엇이며 위대한 사상의 힘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타 레지치는 불길 속 에 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와 우리 당의 기부호들을 안전하게 보위한 식주당의 새 세대 결사옹위투사들에 대한 이야기.

화염에 휩싸인 건물안에는 밖으로 안전하게 빠져나갈수 있는 통로들이 여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왜 그 길을 택하지 않았는가.

온몸을 뜨겁게 달구는 불속에서 그들이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품에 안고있는 글바람이 그것을 말하러 온다.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 화하자!》, 이것이 오르면 18글자이다.

바로 그것을 지켜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서슴없이 바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기적의 낡은 것이 아니라 대중의 정신력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정령 피눈물의 12월을 넘어 오 늘에도 이어진 수백일의 날과 달들이 력사를 전진시킨 이 위대한 힘-천만군민의 정신력이 다시 한번 활활살같이 폭발할 때 우리 조국땅에는 얼마나 많은 마시령스키장이 창조될지이며 또 얼마나 많은 행복의 선경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게 될 것인가.

천만군민의 사상정신력의 폭발, 여기에 농업전선의 승리와 있고 대건설의 불바람도 있으며 과학전선의 힘찬 보폭도 있다.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는 바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력의 빛나는 승리인 것이다.

바로 그래서 원수님들은 우리의 힘이고 최강의 무기인 천만군민의 사상정신력을 허물어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린다.

보라, 어제는 《기다리는 전략》이니, 《경화적이행》이니 하면서 우리의 사상과 신념에 금이 가기를 기다리던 원수들이 오늘은 《변화를 기다리지만 말고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벌리며 비렬한 심리모략전에 광분하고있다. 엄청난 자금과 수단들이 포성없는 이 전쟁에 동원되고 현대과학의 최첨단성공품들이 도입되어 매일, 매 시각 보이지 않는 《심리폭탄》이 우리의 사상과 신념의 상체에 투하된다.

사회주의수호전선이 어찌 천리방선 전호기에서만 벌어진다고 하라.

불타는 거리와 마을은 보이지 않고 폭을 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위업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치열하고 준엄한 사상과 신념의 대결전이 바로 우리 생활의 한복판에서 벌어지고있다.

대포나 탱크가 파괴한 물질적재부는 복구할수 있어도 사상정신적재화는 만회할수도 복구할수도 없다. 그래서 군사적대결전에서는 일일일피

가 있고 방아와 공격이라는 술어가 있어도 사상정신적대결에서는 한치의 양보나 후퇴도 있어서는 안되며 단 한순간의 해이나 무방비상태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사상의 포성은 언제나 열려있어야 한다.

사상의 포문에 녹이 쏘면 사회주의를 지킬수 없다.

이것이 20세기가 남긴 비극이고 교훈이며 오늘도 우리를 끝없이 각성시키는 력사의 진리이다.

사상의 힘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사상의 힘을 말할수 있는 고귀한 진리가 있으며 력사적인 체험이 있다.

위대한 사상이란 무엇이며 위대한 사상의 힘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타 레지치는 불길 속 에 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와 우리 당의 기부호들을 안전하게 보위한 식주당의 새 세대 결사옹위투사들에 대한 이야기.

화염에 휩싸인 건물안에는 밖으로 안전하게 빠져나갈수 있는 통로들이 여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왜 그 길을 택하지 않았는가.

온몸을 뜨겁게 달구는 불속에서 그들이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품에 안고있는 글바람이 그것을 말하러 온다.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 화하자!》, 이것이 오르면 18글자이다.

바로 그것을 지켜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서슴없이 바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기적의 낡은 것이 아니라 대중의 정신력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정령 피눈물의 12월을 넘어 오 늘에도 이어진 수백일의 날과 달들이 력사를 전진시킨 이 위대한 힘-천만군민의 정신력이 다시 한번 활활살같이 폭발할 때 우리 조국땅에는 얼마나 많은 마시령스키장이 창조될지이며 또 얼마나 많은 행복의 선경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게 될 것인가.

신념의 노래가 강산을 진감한다.

...  
위대한 김정은 동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당신게 충실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상이고 신념이다. 바로 이것이 조선의 정신이고 기상이다.

그이만을 받들어 세상 끝까지 충성다할 천만군민의 드림없는 신념이 여기에 있고 우리의 힘, 우리의 손으로 부강번영하는 주체의 력적인 실천을 기어 일떠세울 자력쟁쟁의 정신이 여기서 빛날지며 인민의 모든 꿈이 이루어질 내 조국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환희롭게 그려보는 우리의 신념과 락관도 여기서 불길처럼 온다.

우리와 만난 8월25일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승리의 보고를 기다리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생각하면 세한 풍광도 두렵지 않았습다. 우리 배에는 풍소 배에 오르면 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이 여겨지지 않습다. 원수님은 언제나 무서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없고, 못해낼 일도 없습다.》

이들이 안아온 희한한 물고기대중에는 하늘을 이기는 기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우리 원수님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며 그이의 구상과 의도라면 물과 불속이라도 웃으며 뛰어드는 천만군민의 불타는 마음이 력사의 기적을 창조한다. 그 총성의 한마음이 바로 이 땅우에 가장 위대하고 눈부신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보란 듯이 안아올리는 조선의 힘, 조선의 제일국력이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연단에서 우리 원수님께서 하신 뜻깊은 연설이 사상전선의 기수들의 심장의 피를 세차게 끓인다.

강일유격대의 나팔수, 이것이 오늘 우리 당선전일군들이 일제히 차지해

야 할 제1선차이며 심장마다에 타 울려야 할 신념의 웨침이다.

진군의 나팔소리 우렁찬 곳에 승리의 개가가 높이 울린다.

방어행이 아니라 공격행으로 편성된 우리 사상전지의 힘있는 나팔수인 당사상일군들의 기상과 보폭에 총공격대오의 전진이 달려있다.

주체사상의 조국에서 사상사업을 하는 일군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사상의 무기를 메고 목적의식적으로 군중속에 들어가 함께 방도를 모색하는 적극적인 실천자, 헌신적인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 원수님의 간곡한 말씀.

얼마나 뜻깊은 가르치심인가.

사상공세, 이는 곧 우리 사상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세에서의 근본적인 변혁이다.

사상사업에서의 패배주의처럼 유례로온것은 없다. 경제일군이 패배주의를 하면 한 단위의 생산실적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상일군이 패배주의를 하면 그 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사상정신영역에 공백이 생긴다. 사람의 사상의식에는 공백이 없다. 우리 사상일군들이 잠시라도 방계를 풀고 신념을 늦추면 그 공간을 바로 원수들이 리 용한다.

사상의 포문을 언제나 열고 원수들에게 철수를 내리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을 주는 사상의 미사일들로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밀 철성의 의지로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가슴이 불타오른다.

진군의 나팔수인 사상일군들의 발걸이 닿는 곳마다에서 당의 목소리와 우렁찬 혁명가요가 울리고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할 드높은 열정으로 우리 당사상전선이 세차게 끓는다.

주체의 사상론자는 주체사상의 철저한 신봉자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한평생의 전부로 사랑하신 우리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처럼 진정으로 인민을 숭배하고 온넉으로 인민을 존경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형의 사상공세의 전열에 나설수 있다.

인민의 어버이의 간곡한 당부가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가슴마다에 뜨거이 울려든다.

우리 당선전일군들은 군중을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서 배우며 인민의 수고를 값높이 헤아릴 줄 아는 진정한 인민의 아들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군중을 대할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서 한평생 하늘처럼 떠받들고 스승으로 섬긴 그 위대한 인민이 바로 자기앞에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인민관을 세우는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사상일군들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요구로 나선다.

근로하는 인민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손에 기름을 묻히고 흙을 묻히면서 언제나, 어느때나 군중과 어울리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심장을 맞대고 기적창조의 불길을 지퍼올리는 거센 밀물이 되라.

걸어온 길 뒤돌아보고 또다시 걸어갈 앞길을 신심뜨이 내다보는 우리 당선전일군들의 눈앞에 어려오는 혁명가의 행장이 있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당선전일군들이 메고다녔던 항일유격대식산동배낭이다. 이 배낭을 메고 우리 당일군들이 들끓는 포전명중포화를 들이밀 철성의 의지로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가슴이 불타오른다.

진군의 나팔수인 사상일군들의 발걸이 닿는 곳마다에서 당의 목소리와 우렁찬 혁명가요가 울리고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할 드높은 열정으로 우리 당사상전선이 세차게 끓는다.

주체의 사상론자는 주체사상의 철저한 신봉자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한평생의 전부로 사랑하신 우리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처럼 진정으로 인민을 숭배하고 온넉으로 인민을 존경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형의 사상공세의 전열에 나설수 있다.

인민의 어버이의 간곡한 당부가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가슴마다에 뜨거이 울려든다.

우리 당선전일군들은 군중을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서 배우며 인민의 수고를 값높이 헤아릴 줄 아는 진정한 인민의 아들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군중을 대할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서 한평생 하늘처럼 떠받들고 스승으로 섬긴 그 위대한 인민이 바로 자기앞에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인민관을 세우는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사상일군들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요구로 나선다.

근로하는 인민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손에 기름을 묻히고 흙을 묻히면서 언제나, 어느때나 군중과 어울리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심장을 맞대고 기적창조의 불길을 지퍼올리는 거센 밀물이 되라.

걸어온 길 뒤돌아보고 또다시 걸어갈 앞길을 신심뜨이 내다보는 우리 당선전일군들의 눈앞에 어려오는 혁명가의 행장이 있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당선전일군들이 메고다녔던 항일유격대식산동배낭이다. 이 배낭을 메고 우리 당일군들이 들끓는 포전명중포화를 들이밀 철성의 의지로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가슴이 불타오른다.

진군의 나팔수인 사상일군들의 발걸이 닿는 곳마다에서 당의 목소리와 우렁찬 혁명가요가 울리고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할 드높은 열정으로 우리 당사상전선이 세차게 끓는다.

주체의 사상론자는 주체사상의 철저한 신봉자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한평생의 전부로 사랑하신 우리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처럼 진정으로 인민을 숭배하고 온넉으로 인민을 존경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형의 사상공세의 전열에 나설수 있다.

인민의 어버이의 간곡한 당부가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가슴마다에 뜨거이 울려든다.

우리 당선전일군들은 군중을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서 배우며 인민의 수고를 값높이 헤아릴 줄 아는 진정한 인민의 아들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군중을 대할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서 한평생 하늘처럼 떠받들고 스승으로 섬긴 그 위대한 인민이 바로 자기앞에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인민관을 세우는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사상일군들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요구로 나선다.

근로하는 인민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손에 기름을 묻히고 흙을 묻히면서 언제나, 어느때나 군중과 어울리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심장을 맞대고 기적창조의 불길을 지퍼올리는 거센 밀물이 되라.

걸어온 길 뒤돌아보고 또다시 걸어갈 앞길을 신심뜨이 내다보는 우리 당선전일군들의 눈앞에 어려오는 혁명가의 행장이 있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당선전일군들이 메고다녔던 항일유격대식산동배낭이다. 이 배낭을 메고 우리 당일군들이 들끓는 포전명중포화를 들이밀 철성의 의지로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가슴이 불타오른다.

진군의 나팔수인 사상일군들의 발걸이 닿는 곳마다에서 당의 목소리와 우렁찬 혁명가요가 울리고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할 드높은 열정으로 우리 당사상전선이 세차게 끓는다.

주체의 사상론자는 주체사상의 철저한 신봉자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한평생의 전부로 사랑하신 우리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처럼 진정으로 인민을 숭배하고 온넉으로 인민을 존경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형의 사상공세의 전열에 나설수 있다.

인민의 어버이의 간곡한 당부가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가슴마다에 뜨거이 울려든다.

우리 당선전일군들은 군중을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서 배우며 인민의 수고를 값높이 헤아릴 줄 아는 진정한 인민의 아들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군중을 대할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서 한평생 하늘처럼 떠받들고 스승으로 섬긴 그 위대한 인민이 바로 자기앞에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인민관을 세우는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사상일군들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요구로 나선다.

근로하는 인민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손에 기름을 묻히고 흙을 묻히면서 언제나, 어느때나 군중과 어울리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심장을 맞대고 기적창조의 불길을 지퍼올리는 거센 밀물이 되라.

걸어온 길 뒤돌아보고 또다시 걸어갈 앞길을 신심뜨이 내다보는 우리 당선전일군들의 눈앞에 어려오는 혁명가의 행장이 있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당선전일군들이 메고다녔던 항일유격대식산동배낭이다. 이 배낭을 메고 우리 당일군들이 들끓는 포전명중포화를 들이밀 철성의 의지로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가슴이 불타오른다.

진군의 나팔수인 사상일군들의 발걸이 닿는 곳마다에서 당의 목소리와 우렁찬 혁명가요가 울리고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할 드높은 열정으로 우리 당사상전선이 세차게 끓는다.

주체의 사상론자는 주체사상의 철저한 신봉자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한평생의 전부로 사랑하신 우리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처럼 진정으로 인민을 숭배하고 온넉으로 인민을 존경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형의 사상공세의 전열에 나설수 있다.

인민의 어버이의 간곡한 당부가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가슴마다에 뜨거이 울려든다.

우리 당선전일군들은 군중을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서 배우며 인민의 수고를 값높이 헤아릴 줄 아는 진정한 인민의 아들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군중을 대할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서 한평생 하늘처럼 떠받들고 스승으로 섬긴 그 위대한 인민이 바로 자기앞에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인민관을 세우는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사상일군들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요구로 나선다.

근로하는 인민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손에 기름을 묻히고 흙을 묻히면서 언제나, 어느때나 군중과 어울리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심장을 맞대고 기적창조의 불길을 지퍼올리는 거센 밀물이 되라.

걸어온 길 뒤돌아보고 또다시 걸어갈 앞길을 신심뜨이 내다보는 우리 당선전일군들의 눈앞에 어려오는 혁명가의 행장이 있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당선전일군들이 메고다녔던 항일유격대식산동배낭이다. 이 배낭을 메고 우리 당일군들이 들끓는 포전명중포화를 들이밀 철성의 의지로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가슴이 불타오른다.

진군의 나팔수인 사상일군들의 발걸이 닿는 곳마다에서 당의 목소리와 우렁찬 혁명가요가 울리고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할 드높은 열정으로 우리 당사상전선이 세차게 끓는다.

주체의 사상론자는 주체사상의 철저한 신봉자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한평생의 전부로 사랑하신 우리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처럼 진정으로 인민을 숭배하고 온넉으로 인민을 존경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형의 사상공세의 전열에 나설수 있다.

인민의 어버이의 간곡한 당부가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가슴마다에 뜨거이 울려든다.

우리 당선전일군들은 군중을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서 배우며 인민의 수고를 값높이 헤아릴 줄 아는 진정한 인민의 아들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군중을 대할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서 한평생 하늘처럼 떠받들고 스승으로 섬긴 그 위대한 인민이 바로 자기앞에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인민관을 세우는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사상일군들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요구로 나선다.

근로하는 인민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손에 기름을 묻히고 흙을 묻히면서 언제나, 어느때나 군중과 어울리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심장을 맞대고 기적창조의 불길을 지퍼올리는 거센 밀물이 되라.

걸어온 길 뒤돌아보고 또다시 걸어갈 앞길을 신심뜨이 내다보는 우리 당선전일군들의 눈앞에 어려오는 혁명가의 행장이 있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당선전일군들이 메고다녔던 항일유격대식산동배낭이다. 이 배낭을 메고 우리 당일군들이 들끓는 포전명중포화를 들이밀 철성의 의지로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가슴이 불타오른다.

진군의 나팔수인 사상일군들의 발걸이 닿는 곳마다에서 당의 목소리와 우렁찬 혁명가요가 울리고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할 드높은 열정으로 우리 당사상전선이 세차게 끓는다.

주체의 사상론자는 주체사상의 철저한 신봉자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한평생의 전부로 사랑하신 우리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처럼 진정으로 인민을 숭배하고 온넉으로 인민을 존경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형의 사상공세의 전열에 나설수 있다.

인민의 어버이의 간곡한 당부가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가슴마다에 뜨거이 울려든다.

우리 당선전일군들은 군중을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서 배우며 인민의 수고를 값높이 헤아릴 줄 아는 진정한 인민의 아들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군중을 대할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서 한평생 하늘처럼 떠받들고 스승으로 섬긴 그 위대한 인민이 바로 자기앞에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인민관을 세우는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사상일군들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요구로 나선다.

근로하는 인민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손에 기름을 묻히고 흙을 묻히면서 언제나, 어느때나 군중과 어울리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심장을 맞대고 기적창조의 불길을 지퍼올리는 거센 밀물이 되라.

걸어온 길 뒤돌아보고 또다시 걸어갈 앞길을 신심뜨이 내다보는 우리 당선전일군들의 눈앞에 어려오는 혁명가의 행장이 있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당선전일군들이 메고다녔던 항일유격대식산동배낭이다. 이 배낭을 메고 우리 당일군들이 들끓는 포전명중포화를 들이밀 철성의 의지로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가슴이 불타오른다.

진군의 나팔수인 사상일군들의 발걸이 닿는 곳마다에서 당의 목소리와 우렁찬 혁명가요가 울리고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할 드높은 열정으로 우리 당사상전선이 세차게 끓는다.

주체의 사상론자는 주체사상의 철저한 신봉자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한평생의 전부로 사랑하신 우리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처럼 진정으로 인민을 숭배하고 온넉으로 인민을 존경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형의 사상공세의 전열에 나설수 있다.

인민의 어버이의 간곡한 당부가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가슴마다에 뜨거이 울려든다.

우리 당선전일군들은 군중을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서 배우며 인민의 수고를 값높이 헤아릴 줄 아는 진정한 인민의 아들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군중을 대할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서 한평생 하늘처럼 떠받들고 스승으로 섬긴 그 위대한 인민이 바로 자기앞에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인민관을 세우는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사상일군들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요구로 나선다.

근로하는 인민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손에 기름을 묻히고 흙을 묻히면서 언제나, 어느때나 군중과 어울리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심장을 맞대고 기적창조의 불길을 지퍼올리는 거센 밀물이 되라.

걸어온 길 뒤돌아보고 또다시 걸어갈 앞길을 신심뜨이 내다보는 우리 당선전일군들의 눈앞에 어려오는 혁명가의 행장이 있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당선전일군들이 메고다녔던 항일유격대식산동배낭이다. 이 배낭을 메고 우리 당일군들이 들끓는 포전명중포화를 들이밀 철성의 의지로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가슴이 불타오른다.

진군의 나팔수인 사상일군들의 발걸이 닿는 곳마다에서 당의 목소리와 우렁찬 혁명가요가 울리고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할 드높은 열정으로 우리 당사상전선이 세차게 끓는다.

주체의 사상론자는 주체사상의 철저한 신봉자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한평생의 전부로 사랑하신 우리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처럼 진정으로 인민을 숭배하고 온넉으로 인민을 존경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형의 사상공세의 전열에 나설수 있다.

인민의 어버이의 간곡한 당부가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가슴마다에 뜨거이 울려든다.

우리 당선전일군들은 군중을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서 배우며 인민의 수고를 값높이 헤아릴 줄 아는 진정한 인민의 아들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군중을 대할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서 한평생 하늘처럼 떠받들고 스승으로 섬긴 그 위대한 인민이 바로 자기앞에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인민관을 세우는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사상일군들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요구로 나선다.

근로하는 인민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손에 기름을 묻히고 흙을 묻히면서 언제나, 어느때나 군중과 어울리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심장을 맞대고 기적창조의 불길을 지퍼올리는 거센 밀물이 되라.

걸어온 길 뒤돌아보고 또다시 걸어갈 앞길을 신심뜨이 내다보는 우리 당선전일군들의 눈앞에 어려오는 혁명가의 행장이 있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당선전일군들이 메고다녔던 항일유격대식산동배낭이다. 이 배낭을 메고 우리 당일군들이 들끓는 포전명중포화를 들이밀 철성의 의지로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가슴이 불타오른다.

진군의 나팔수인 사상일군들의 발걸이 닿는 곳마다에서 당의 목소리와 우렁찬 혁명가요가 울리고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할 드높은 열정으로 우리 당사상전선이 세차게 끓는다.

주체의 사상론자는 주체사상의 철저한 신봉자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한평생의 전부로 사랑하신 우리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처럼 진정으로 인민을 숭배하고 온넉으로 인민을 존경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형의 사상공세의 전열에 나설수 있다.

인민의 어버이의 간곡한 당부가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가슴마다에 뜨거이 울려든다.

우리 당선전일군들은 군중을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서 배우며 인민의 수고를 값높이 헤아릴 줄 아는 진정한 인민의 아들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군중을 대할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서 한평생 하늘처럼 떠받들고 스승으로 섬긴 그 위대한 인민이 바로 자기앞에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인민관을 세우는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사상일군들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요구로 나선다.

근로하는 인민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손에 기름을 묻히고 흙을 묻히면서 언제나, 어느때나 군중과 어울리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심장을 맞대고 기적창조의 불길을 지퍼올리는 거센 밀물이 되라.

걸어온 길 뒤돌아보고 또다시 걸어갈 앞길을 신심뜨이 내다보는 우리 당선전일군들의 눈앞에 어려오는 혁명가의 행장이 있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당선전일군들이 메고다녔던 항일유격대식산동배낭이다. 이 배낭을 메고 우리 당일군들이 들끓는 포전명중포화를 들이밀 철성의 의지로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가슴이 불타오른다.

진군의 나팔수인 사상일군들의 발걸이 닿는 곳마다에서 당의 목소리와 우렁찬 혁명가요가 울리고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할 드높은 열정으로 우리 당사상전선이 세차게 끓는다.

주체의 사상론자는 주체사상의 철저한 신봉자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한평생의 전부로 사랑하신 우리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처럼 진정으로 인민을 숭배하고 온넉으로 인민을 존경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형의 사상공세의 전열에 나설수 있다.

인민의 어버이의 간곡한 당부가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가슴마다에 뜨거이 울려든다.

우리 당선전일군들은 군중을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서 배우며 인민의 수고를 값높이 헤아릴 줄 아는 진정한 인민의 아들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군중을 대할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서 한평생 하늘처럼 떠받들고 스승으로 섬긴 그 위대한 인민이 바로 자기앞에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인민관을 세우는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사상일군들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요구로 나선다.

근로하는 인민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손에 기름을 묻히고 흙을 묻히면서 언제나, 어느때나 군중과 어울리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심장을 맞대고 기적창조의 불길을 지퍼올리는 거센 밀물이 되라.

걸어온 길 뒤돌아보고 또다시 걸어갈 앞길을 신심뜨이 내다보는 우리 당선전일군들의 눈앞에 어려오는 혁명가의 행장이 있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당선전일군들이 메고다녔던 항일유격대식산동배낭이다. 이 배낭을 메고 우리 당일군들이 들끓는 포전명중포화를 들이밀 철성의 의지로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가슴이 불타오른다.

진군의 나팔수인 사상일군들의 발걸이 닿는 곳마다에서 당의 목소리와 우렁찬 혁명가요가 울리고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할 드높은 열정으로 우리 당사상전선이 세차게 끓는다.

주체의 사상론자는 주체사상의 철저한 신봉자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한평생의 전부로 사랑하신 우리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처럼 진정으로 인민을 숭배하고 온넉으로 인민을 존경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형의 사상공세의 전열에 나설수 있다.

인민의 어버이의 간곡한 당부가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가슴마다에 뜨거이 울려든다.

우리 당선전일군들은 군중을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서 배우며 인민의 수고를 값높이 헤아릴 줄 아는 진정한 인민의 아들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군중을 대할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서 한평생 하늘처럼 떠받들고 스승으로 섬긴 그 위대한 인민이 바로 자기앞에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인민관을 세우는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사상일군들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요구로 나선다.

근로하는 인민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손에 기름을 묻히고 흙을 묻히면서 언제나, 어느때나 군중과 어울리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심장을 맞대고 기적창조의 불길을 지퍼올리는 거센 밀물이 되라.

걸어온 길 뒤돌아보고 또다시 걸어갈 앞길을 신심뜨이 내다보는 우리 당선전일군들의 눈앞에 어려오는 혁명가의 행장이 있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당선전일군들이 메고다녔던 항일유격대식산동배낭이다. 이 배낭을 메고 우리 당일군들이 들끓는 포전명중포화를 들이밀 철성의 의지로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가슴이 불타오른다.

진군의 나팔수인 사상일군들의 발걸이 닿는 곳마다에서 당의 목소리와 우렁찬 혁명가요가 울리고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할 드높은 열정으로 우리 당사상전선이 세차게 끓는다.

주체의 사상론자는 주체사상의 철저한 신봉자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한평생의 전부로 사랑하신 우리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처럼 진정으로 인민을 숭배하고 온넉으로 인민을 존경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형의 사상공세의 전열에 나설수 있다.





#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절세위인의 사상리론업적

#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 해외동포들 경축행사 진행

해외동포들 경축행사 진행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에는 식명은 국제고려인 통일연합회 위원장, 주영일 우즈베키스탄 조선문화전통 《로인》협회 회장, 고대춘부회장, 일군들, 동포예술단 단장들,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연설자들은 민족통일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린 위대한 김정일대원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 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에서 남에남이다.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있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변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조선의 일대 변영기를 열어나가는 조국의 벽찬 현실을 격찬하였다.

은 거겨해 민족분열을 끝장내고 북한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러한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해외동포들이 18일

## 남조선 각계가 높은 이 칭송

남조선인민들은 지금으로부터 40년전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시고 김일성주의 기치밑에 공화국을 일심단결된 불멸의 정치사상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위대한 앞길을 펼쳐주시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특출한 사상리론업적을 열렬히 칭송하고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어 인류사상에 특기할 공헌을 하신데 대해 한 인터넷홈페이지는 《인류사상사에 기여하신 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인류사상사에 기여하신 점은 첫째로,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혁명리론, 령도방법의 전일적체계로 정식화하여 김일성주의로 정립하신것이다.

둘째로, 수령은 최고녀수이며 통일단결의 유일중심 즉 사회정치적집단의 중심이라는 수령론을 창시하신것이다.

셋째로,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일심단결된 민중만이 자주적 주체, 사회변혁운동의 주체로 될수 있다는 사회변혁운동의 주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주신것이다.

넷째로,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며 사상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된다는 사상론을 정립하신것이다.

다섯째로, 선군사상을 새롭게 정립하신것이다.

참으로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뛰어난 예지와 통찰력으로 자주시대를 이끌어갈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어 인류가 나아가 갈 새로운 길을 밝혀주시어 사상의 대가이시다.

인터넷홈페이지 《정세동향》에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정치철학, 주체사상》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이 실렸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유일합한 지도사상은 주체사상이며 이것은 오직 김일성주석님의 존함파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다고 천명하시였다.

이제 기 초하여 1974년 2월 19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1970년대에 이미 김일성주석님을 중심으로 하는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시였다.

이전 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 나라들이 련이어 붕괴되던 1990년대의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등 수많은 저작물을 발표하시어 사회주의를 끝까지 수호함께 대해 선언하시고 수정주의자들과 미국과의 전면대결전에 나서시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후호를 제시하시어 이북사회를 주석님의 사상과 리념으로 묶어주시였다.

민중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회는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후호를 제시하시어 이북사회를 주석님의 사상과 리념으로 묶어주시였다.

민중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회는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후호를 제시하시어 이북사회를 주석님의 사상과 리념으로 묶어주시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후호를 제시하시어 이북사회를 주석님의 사상과 리념으로 묶어주시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후호를 제시하시어 이북사회를 주석님의 사상과 리념으로 묶어주시였다.

사상리론업적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업적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를 비롯한 고전적작품에서 선군사상, 선군정치에 관한 리론을 전일적으로 정립체계화 하였는데 그대도 반영되어있고 격찬하였다.

《사주민주》, 《통일뉴스》 등 언론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불후의 고전적저작들을 발표하시어 우리 민족이 나아가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게하시는데 대해 찬탄하였다.

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저작물을 발표할 때마다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정중히 모시고 로작원문을 그대로 또는 그 내용을 상세히 전하였다.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은 홈페이지들에 실은 글들에서 《세계는 조선인민이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성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했기》라고 확신하고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민족의 미래는 창창하며 대원수님께서서 그토록 넘나신 사회주의강성국가는 반드시 건설되고 통일의 새 아침도 가까이 밝아올것이다.》고 확신을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것이다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담화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은 23일 《목과 마음 다 바쳐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길길이 만들어 나갈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20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을 커다란 감동속에 받아안은 데 대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한것은 조국인민들의 한결같은 충정의 발현이며 우리 해외동포들의 행방과 미래가 담보되는 크나큰 경사라고 지적하였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

#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 당장 중지하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24일 《미국은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반대에 불구하고 끝끝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남조선의 전지역에서 벌려놓았다고 규탄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반공화국전쟁행위를 가져올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신속하고도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범죄적인 대조선침략행위에 추종해서 나서는 것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발전을 해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인 범죄행위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미국의 부실없는 불장난에 충추지 말아야 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수많은 흠어진 가족, 친척들이 장구한 기간 서로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지내는 기막힌 비극을 초래한 분열의 원흉이며 천하의 국악한 인권침해자이다.

미국이 우리 민족앞에 엮드려 저들이 저지른 대외악을 사과할대신에 화악내내하는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것은 북남관계에서 나서는 현안문제들을 대화로 협의가 24일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정경으로 몰아가는 합동군사연습을 즉시 중지하라》라는 제목의 공보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최근 공화국의 평화호적인 노력에 의해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궁정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이 이루어지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북남

# 당장 중지하라》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라》

미국이 조성된 좋은 분위기를 흐려주고 미국과 결탁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고 규탄하였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이라고 까뻐하였다.

미국이 행진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군사연습의 규모를 줄이면서도 조선반도에서는 핵전쟁연습에 따라 해마다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을 벌리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민족이 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광풍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파라시키기를 위하여 펼쳐나설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핵전쟁연습, 북침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성명을 강조하였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교포신문 《민중주의》에 의하면 《세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의 장 손영근, 《세일한국청년동맹》 위원장 문세현, 《세일한국민주녀성회》 회장 김지영, 《세일한국인학생협회》 회장 조영화를 비롯한 동포단체 대표들과 재일동포들이 24일 도에 있는 일본주재 미국대사관앞에서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즉시 중지하라 하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행진자들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즉시 중지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교포신문 《민중주의》에 의하면 《세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의 장 손영근, 《세일한국청년동맹》 위원장 문세현, 《세일한국민주녀성회》 회장 김지영, 《세일한국인학생협회》 회장 조영화를 비롯한 동포단체 대표들과 재일동포들이 24일 도에 있는 일본주재 미국대사관앞에서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즉시 중지하라 하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행진자들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즉시 중지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교포신문 《민중주의》에 의하면 《세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의 장 손영근, 《세일한국청년동맹》 위원장 문세현, 《세일한국민주녀성회》 회장 김지영, 《세일한국인학생협회》 회장 조영화를 비롯한 동포단체 대표들과 재일동포들이 24일 도에 있는 일본주재 미국대사관앞에서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즉시 중지하라 하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행진자들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즉시 중지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에 항의하여 투쟁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을 규탄하는 항의투쟁이 21일 서울에서 있었다.

서울시 《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독도를 자기의 령토라고 하는것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2월 28일 시민단체들이 망라된 독도수호시민단체총련합회의 결성을 선포할것이라고 그는 언급하였다.

이번 독도연구원을 비롯한 20여개 독도관련 시민단체 성원들은 일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일본이 중공독학고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서 독도를 저들의 령토라고 주장하고 22일에는 《다케시마(독도의 날)》 행사를 강행하려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시민단체는 일본의 당동을 단죄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단체성원들이 앞장서 자수기진자앞에서 파멸적인 령토강탈책동을 규탄하는 항의투쟁을 벌일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독도수호국제연대 성원들도 일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일본의 우익정부는 새 세대에들에게 강행하는 독도강탈교육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

# 인보세력탄압에 대한 단죄와 규탄

진보연대와 민주로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보내 내란음모조직과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권지방법원의 판결은 권력에 굴복한 정치판결과이라고 주장하였다.

발언자들은 내란음모사건은 선거개입사건으로 하여 궁지에 빠진 진보연대 위기국면을 전환하려고 조작한 사건으로서 검찰이 정보원의 주장대로 기소하고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구속된 범법민 남중수 성원들에 대한 각계층의 지지봉응을 통해 연대투쟁의 위력과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모두가 투쟁할 때 투쟁의 힘은 매우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억울운동단체가 탄압받으면 그 피해는 전체 민주운동세력에 미칠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단결하여 투쟁하자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 평화의 파괴자, 대결의 장본인

평화의 파괴자, 대결의 장본인

말미잘 천하정승 금강산에서 진행된 북과 남의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감격적인 상봉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바라는 민족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었다. 쉽지 않게 내리던 북남관계개선의 첫걸음을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한길로 즐기게 해주어 나아가려는 겨레의 의지는 세 차례 불타오르고있다.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이러한 대세의 흐름을 찬물처럼 끼얹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 겨레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달려전비와 같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벌려놓았다. 이 합동군사연습이 우리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모험적인 작전계획에 따라 방대한 핵전쟁장비들을 투입하여 감행되는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연습이라는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벌려놓을것을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진심이런 제안과 동의의 노력을 《위구심》이니, 《위협》이니 하고 함부로 모독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에 방해해나갔다. 대영양지역 미군총사령관이라는자가 기자회견장에서 나타나 남조선의 연합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으며 2월말부터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예정대로 벌려놓을것이라고 하면서 북침통계를 포괄적으로 드러내면서 그대로 표적시설했다.

그뿐이 아니다.

얼마전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 월리엄 의원이란자는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보려고 조선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는데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있다는것을 말했다.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결코 달가와하지 않으며 그에 어떻게 하나 행방을 놓으려는 미국의 속심은 만분지일씩 북남사이에서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과 관련된 실무회담이 진행되는 시점에 조선시세의 지도자 《북과의 협상과정에 주의》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대화를 하는것은 효과가 없다》라는 수작을 내뻘었다.

머구기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 《보안법》 철폐를 주장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사주민주》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가협 망심수후회회가 22일 서울에서 기독교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가지고 《보안법》철폐와 모든 망심수들의 석방을 위해 투쟁할것이라고 밝혔다.

발언자들은 최근 남조선에서 자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진보운동가들은 구속되고 불법선거에 개입한자들은 무죄로 판결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반복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통합진보당해체를 노린 내란음모조직, 범법민 남측본부

# 민간인학살사건 진상규명을 요구

민간인학살사건 진상규명을 요구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18일 남조선의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서울에서 진행중인 민간인학살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을 결성하였다.

결성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전쟁시기 이승만 《정권》이 최경은 민간인들을 무리로 학살하고 매장해버린데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것은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하였다.

억울한 투명을 쓰고 학살된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싸우기로 하였

# 자주시대의 앞길을 밝힌 위대한 사상리론적업적

오늘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인류는 자주시대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 있다.

천재적예지와 비범한 통찰력, 과학적 분석력과 명석한 판단,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시대와 역사앞에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고 세계가 자주의 리론으로 드립없이 나아갈수 있는 백승의 보검을 안겨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사상리론적업적이 있었기에 인류자주위업은 자기의 제도를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해올수 있었다.

대학시기에 벌써 현대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위악성을 날같이 까발리시고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논증하는 논문《현대제국주의의 특성과 침략적본성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어 사상리론의 영재로서의 실력을 과시하신 우리 장군님이시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정립케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어 세계자주화위업의 앞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셨다.

이 로작이 발표되자마자 세계적으로 폭풍같은 반향이 일어났다.

《사상리론의 거장 김정일동지 완성된 혁명학설 제시》, 《인류의 사상발전에서 최고의 최고》, 《삼과 투쟁의 무기를 안겨준 백과사전》... 이 열렬한 칭송의 목소리들은 비범한 사상리론가로서의 우리 장군님의 위인상이 이미 세계 진보적인인류의 심장에 소중히 자리잡았음을 잘 알수 있게 한다.

불멸의 영웅의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발전부화시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활동의 매시, 매 단계마다에서 제기되는 침략한리론실천적문제들에 명철한 해답을 주시어 인류사상사에 거대한 업적을 아

로세기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비상한 탐구력으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동지로 정식화하시고 김일성동지가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하시였습니다.》

지난 세기 80년대말~90년대초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났다. 이로 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영상이 흐려지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진보적정당들과 사람들속에서 사상적동요가 일어났다.

진보적인인류가 간고한 투쟁을 통해 쟁취하고 전진시켜온 사회주의의 운명을 생사기로운 놓고 제국주의자들은 수호자로서의 충절을 버리고 사회주의의 최대의 업적이 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사상리론의 대가로서 만민의 공인과 칭송을 받아오신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역사발전과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선군사상, 선군정치리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으로써 자주시대의 앞길을 또 하나의 거대한 사상리론적업적을 쌓아 올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국제무대에서 력사의 전진을 멈추어보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대동맹의 책동이 전례없이 악랄하게 벌어지던 엄혹한 시기에 《선군혁명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론서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지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위대한 사회주의정치방식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등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련이어 발표되였다.

글자 하나, 문구 하나하나가 다 인류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신심으로 충만되고 정의와 진리를 옹호하고 불의와 허위, 기만과 꾀변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는 사상리론적철추자 된 불멸의 로작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작들을 받아안고 인류는 《흔들리던 사회주의리념에 영원 드는 불후의 초석이 고여지게 되었으며 그늘졌던 사회주의영상에 밝은 빛

이 비쳐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격정을 더했다.

영영 주저않을뿐 했던 진보적인인류는 다시금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일터였으며 원수들은 전멸했다.

불멸의 로작들에 의해 사회주의배신자들에게 의한 사회주의사상의 외곽사태는 좌절되고 세계자주화위업은 더욱 승승장구할수 있게 되었다.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광풍이 세차게 몰아치던 그처럼 엄혹한 시기에 그 누가 감히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재건시키려 대한 글 한자 써낸적이 있었는가.

오직 김정일동지께서만이 세계사주의 운명의 강화발전을 위해 수많은 사상리론을 내놓으시고 실천에 구현해나가 고계신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구원자, 수호자로서의 김정일동지의 최대의 업적이 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사상리론의 대가로서 만민의 공인과 칭송을 받아오신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역사발전과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선군사상, 선군정치리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으로써 자주시대의 앞길을 또 하나의 거대한 사상리론적업적을 쌓아 올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국제무대에서 력사의 전진을 멈추어보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대동맹의 책동이 전례없이 악랄하게 벌어지던 엄혹한 시기에 《선군혁명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론서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지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위대한 사회주의정치방식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등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련이어 발표되였다.

이 로작들에 집대성되어있는 선군사상, 선군정치리론은 정의와 진리의 기준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리해판정에 의해 정정해지지는못했고 오히려 정당화되던 비극적인 현실에 경종을 울리였다.

로씨야의 어느 한 작가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모든것이 절망적인것으로 보이던 그 시각에 동방조선으로부터 정치평명의 빛발이 어둠을 뚫고 전세계에 비쳐갔다. 그 정치평명이 바로 김정일동지의 명저 《선군혁명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론서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지이다》였다.

로씨야의 한 정당지도자는 그대 받은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더했다.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광풍이 세차게 몰아치던 그처럼 엄혹한 시기에 그 누가 감히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재건시키려 대한 글 한자 써낸적이 있었는가.

오직 김정일동지께서만이 세계사주의 운명의 강화발전을 위해 수많은 사상리론을 내놓으시고 실천에 구현해나가 고계신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구원자, 수호자로서의 김정일동지의 최대의 업적이 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사상리론의 대가로서 만민의 공인과 칭송을 받아오신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역사발전과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선군사상, 선군정치리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으로써 자주시대의 앞길을 또 하나의 거대한 사상리론적업적을 쌓아 올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국제무대에서 력사의 전진을 멈추어보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대동맹의 책동이 전례없이 악랄하게 벌어지던 엄혹한 시기에 《선군혁명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론서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지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위대한 사회주의정치방식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등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련이어 발표되였다.

이 로작들에 집대성되어있는 선군사상, 선군정치리론은 정의와 진리의 기준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리해판정에 의해 정정해지지는못했고 오히려 정당화되던 비극적인 현실에 경종을 울리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기록하신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은 인류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 세계직업련맹 위원장리사회 회의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14일과 15일에 진행된 세계직업련맹 위원장리사회 회의가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회의에서는 18개 나라와 국제 및 지역의 로조단체들이 서명한 호소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지지하여 세계 각국의 로조단체들에 보내는 호소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근 70년간 지속되고있는 국토분열의 력사는 북과 남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해할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다.

조선민족의 이 비극적인 처우의 력사는 전적으로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년례적》이며 《방어적》이라는 구실밑에 해마다 벌려온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끝 강행하겠다고 떠들어댔다.

지난 1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총재안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된다고 인정한 호소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지지하여 세계 각국의 로조단체들에 보내는 호소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지지하여 세계 각국의 로조단체들에 보내는 호소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족의 이 비극적인 처우의 력사는 전적으로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선거조작과 절차에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철저히 실현되고 그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고있는데 있다고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인민자위 조직하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정권의 본질적특성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인민자위 조직하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정권의 본질적특성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인민자위 조직하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정권의 본질적특성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인민자위 조직하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정권의 본질적특성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 가장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 브라질 단체 인터넷에 글 게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가 19일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장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진하였다. 조선에서는 선거를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따라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 나라 헌법에는 17살이상의 모든 공민들이 성별, 민족별, 직업별, 거주기간, 재산과 관계없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인민자위 조직하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정권의 본질적특성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인민자위 조직하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정권의 본질적특성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인민자위 조직하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정권의 본질적특성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인민자위 조직하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정권의 본질적특성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살림집개건사업 중국 내몽골자치구에서 살림집개건사업에 계속 힘을 넣고 있다.

다시금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일터였으며 원수들은 전멸했다.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광풍이 세차게 몰아치던 그처럼 엄혹한 시기에 그 누가 감히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재건시키려 대한 글 한자 써낸적이 있었는가.

오직 김정일동지께서만이 세계사주의 운명의 강화발전을 위해 수많은 사상리론을 내놓으시고 실천에 구현해나가 고계신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구원자, 수호자로서의 김정일동지의 최대의 업적이 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사상리론의 대가로서 만민의 공인과 칭송을 받아오신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역사발전과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선군사상, 선군정치리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으로써 자주시대의 앞길을 또 하나의 거대한 사상리론적업적을 쌓아 올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국제무대에서 력사의 전진을 멈추어보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대동맹의 책동이 전례없이 악랄하게 벌어지던 엄혹한 시기에 《선군혁명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론서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지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위대한 사회주의정치방식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등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련이어 발표되였다.

이 로작들에 집대성되어있는 선군사상, 선군정치리론은 정의와 진리의 기준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리해판정에 의해 정정해지지는못했고 오히려 정당화되던 비극적인 현실에 경종을 울리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기록하신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은 인류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올해에도 경제성장률이 2~4%에 달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합을 다그치기 케니아, 르완다, 우간다 등 동아프리카나라들이 20일 우간다의 캄팔라에서 수녀자회의를 열고 지역적통합을 다그치는데 나서는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14일과 15일에 진행된 세계직업련맹 위원장리사회 회의가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회의에서는 18개 나라와 국제 및 지역의 로조단체들이 서명한 호소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지지하여 세계 각국의 로조단체들에 보내는 호소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지지하여 세계 각국의 로조단체들에 보내는 호소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족의 이 비극적인 처우의 력사는 전적으로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인민자위 조직하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정권의 본질적특성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인민자위 조직하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정권의 본질적특성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인민자위 조직하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정권의 본질적특성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인민자위 조직하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정권의 본질적특성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인민자위 조직하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정권의 본질적특성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인민자위 조직하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정권의 본질적특성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인민자위 조직하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정권의 본질적특성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인민자위 조직하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정권의 본질적특성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인민자위 조직하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정권의 본질적특성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인민자위 조직하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정권의 본질적특성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인민자위 조직하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정권의 본질적특성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인민자위 조직하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정권의 본질적특성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 브루나이에서 국경절 기념

브루나이에서 23일 국경절 30돐을 기념하였다.

이날에 즈음하여 한 연설에서 하지 하사날 불기이후추장은 최근년간 나라가 많은 도전들에 부닥치고있으며 특히 일부 불순세력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그릇된 정보들을 유포시키면서

# 국경절 기념

사회적불안정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주민들이 이와 같은 현상들에 각성을 높이고 철저히 극복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이날 수도의 경기장에서 열릴수 있는 군중시위, 경축공연이 진행되였다.

# 종교분쟁을 야기시키는 이스라엘을 비난

팔레스티나종교분쟁이 19일 기자회견에서 종교분쟁을 야기시키고있는 이스라엘을 비난하였다.

이날 이스라엘의 한 우익정권이 동부구드에 있는 알 아크사사원구대에 들어가 이슬람교도들의 신앙을 건드리려는

#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려는 시도 배격

로씨야주재 이란대사가 22일 카스베연안에 군사적긴장을 조성하려는 미국과 나토의 시도를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과 나토가 카스베연안지역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있는

# 카스베 해역안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려는 시도 배격

로씨야주재 이란대사가 22일 카스베연안에 군사적긴장을 조성하려는 미국과 나토의 시도를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과 나토가 카스베연안지역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있는

# 경제장성

싱가포르에서 지난해 경제가 4.1% 성장하였다.

특히 제조업, 건설부문에서 많은 성과가 기록되었다.

# 폐암 조기진단 방법 개발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연구자들이 간단한 날숨검사로 폐암을 조기 발견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연구자들은 환자들의 날숨에 들어있는가스를 검사하였다.

연구자들은 환자들의 날숨에 들어있는가스를 검사하였다.

연구자들은 환자들의 날숨에 들어있는가스를 검사하였다.

연구자들은 환자들의 날숨에 들어있는가스를 검사하였다.

연구자들은 환자들의 날숨에 들어있는가스를 검사하였다.

연구자들은 환자들의 날숨에 들어있는가스를 검사하였다.

연구자들은 환자들의 날숨에 들어있는가스를 검사하였다.

연구자들은 환자들의 날숨에 들어있는가스를 검사하였다.

연구자들은 환자들의 날숨에 들어있는가스를 검사하였다.

연구자들은 환자들의 날숨에 들어있는가스를 검사하였다.

연구자들은 환자들의 날숨에 들어있는가스를 검사하였다.

연구자들은 환자들의 날숨에 들어있는가스를 검사하였다.

연구자들은 환자들의 날숨에 들어있는가스를 검사하였다.

연구자들은 환자들의 날숨에 들어있는가스를 검사하였다.

# 이란에서 의약품 생산

이란에서 의약품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란에서 의약품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란에서 의약품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란에서 의약품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란에서 의약품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란에서 의약품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란에서 의약품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란에서 의약품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란에서 의약품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란에서 의약품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란에서 의약품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란에서 의약품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란에서 의약품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란에서 의약품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란에서 의약품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란에서 의약품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란에서 의약품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란에서 의약품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다.

# 로씨야 대통령 무력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

로씨야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20일 중국수호자의 날을 맞아 진행된 음악회에서 연설하면서 무력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 무력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

그는 오늘날 세계는 평온하지 않으며 위험과 분쟁의 씨앗을 안고있는 지역들이 늘어나고있다

그는 무력을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고 언급하였다.

# 쿠바근로자중앙 제20차대회 진행

【아바나 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쿠바근로자중앙 제20차대회가 20일부터 22일까지 아바나에서 진행되였다.

# 제20차대회 진행

22일에 진행된 폐막식에서 라울 까스트로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쿠바에서는 그 누구도 실패자로 되지 않을 것이며 나라에서 추진되고있는 변혁은 혁명의 진취성을 절대로 훼손시키지 않을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일본의 핵을 질저촉 책동에 또다시 경고

중국의 교부 대변인 화춘영이 20일 기자회견에 대답하면서 일본이 핵무기개발책동에 대해 또다시 경고하였다.

# 핵을 질저촉 책동에 또다시 경고

무기규제체제를 포함한 많은 핵대안책에 엄청난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사회의 공동행동에 촉구를 하였다.

# 아시아 나라들 사이의 협조

캄보자와 말레이시아가 20일 무역, 투자, 관광, 교육분야에서 협조관계를 확대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아시아 나라들 사이의 협조

이보다 앞서 19일 인디아와 바레인에서 두 나라사이의 무역 및 투자협정에 관한 8건의 문건에 조인하였다.

# 《무기수출3원칙》 완화기도를 반대

일본인들속에서 《무기수출3원칙》의 적용을 완화시키려는 당국의 부당한 기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 완화기도를 반대

들에 대한 무기수출과 무기기술 제공, 무장장비공급개발 및 생산의 급진적 내용을 반대하는 《무기수출3원칙》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은 불이길에 불과하고있다.

# 현 집권자의 정권운영을 비난

전 일본내각관방장관 노나가 19일 현 정권이 위험하고 편협한 정치를 하고있다고 신랄히 비난하였다.

# 정권운영을 비난

그는 집권자의 정권운영에 대해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 미국인들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실패로 간주

미국인들속에서 당국의 무분별한 군사적침공으로 벌어진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확대되고있다.

#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실패로 간주

미국인들속에서 당국의 무분별한 군사적침공으로 벌어진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확대되고있다.

# 미국인들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실패로 간주

미국인들속에서 당국의 무분별한 군사적침공으로 벌어진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확대되고있다.

#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실패로 간주

미국인들속에서 당국의 무분별한 군사적침공으로 벌어진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확대되고있다.

# 미국인들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실패로 간주

미국인들속에서 당국의 무분별한 군사적침공으로 벌어진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확대되고있다.

#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실패로 간주

미국인들속에서 당국의 무분별한 군사적침공으로 벌어진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확대되고있다.

# 미국인들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실패로 간주

미국인들속에서 당국의 무분별한 군사적침공으로 벌어진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확대되고있다.

#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실패로 간주